스위스 꽃길 라이딩.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난 알프스 꽃길과 정겹게 조성된 호반 꽃길

2018 년은 '자전거 타고 다시, 자연의 품으로'
자전거 타고 만나는 스위스의 자연
언덕 위에 조성된 장미 공원과 들판을 따라 펼쳐진 체리 과수원 라이딩
스위스 사람들도 좋아하는 동백꽃부터 알프스 가장 깊숙한 곳에 피어난 에델바이스까지
나르시스와 크로커스같은 이국적인 꽃들도 초원에 한 가득
쉴트호른과 체르마트에서 만나는 알프스 들꽃의 향연
호반따라 정성스레 조성해 놓은 꽃길 라이딩도 낭만적
빙하특급타고 알프스 속살에 수줍게 피어난 봄꽃 만나볼 수도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지난 해에 이어 '다시, 자연의 품으로'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2018 년에는 특별히 '자전거'라는 테마에 초점을 맞춰 스위스의 다채로운 여행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어링 자전거, 산악 자전거, 레이싱 자전거로 세분되는 자전거는 스위스를 여행하고 숨겨진 자연 곳곳을 가장 가까이 체험해 보기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알프스 지역에서 가장 큰 잠재 여행자들은 자전거족들 중에서도 트레킹 바이커들로 조사되고 있다. 스위스 관광객 중 총 6%가 여행 중 자전거를 탔다는 조사가 있는데, 이 수치는 1 천 7 백만명에 달한다. 그 중 43%가 도심지 자전거나 트레킹 자전거이고, 32%는 산악 자전거, 13%가 레이싱, 12%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다.

걷기와 더불어 슬로우 트래블러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는 여행법이 바로 자전거다. 자전거는 스위스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착하고 있는 중이다. 때로는 알프스 바람을 타고 빠르게, 때로는 산들산들 느리게 페달을 밟다보면, 알프스를 오감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봄이 되면 호반과 공원에 오색빛깔 꽃들이 조성되고, 과수원에는 벚꽃과 사과꽃 등 소박하지만 정겨운 꽃들이 피어난다. 호숫가 마을보다 한참이나 늦게 봄이 찾아오는 알프스 산 속 마을에서도 민들레를 비롯한 알프스 야생화와 들꽃이 앞다투어 피어난다. 고도가 높아지면 크로커스나 아네모네 등의 정겨운 꽃들이 가득해진다. 꽃과 함께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꽃길을 소개한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꽃인 에델바이스, 겐티안, 동백꽃, 튤립, 벚꽃, 아이리스, 나르시스, 서양 민들레, 철쭉, 제라늄, 장미, 금매화, 봄 크로커스 등을 만날 수 있다.

1. 쉴트호른(Schilthorn)
쉴트호른(Schilthorn)으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는 뮈렌(Mürren)에서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알멘드후벨(Allmendhubel)에서 뮈렌까지 이어지는 산악 자전거길을 이용해 뮈렌까지 내려오며 아름다운 봄꽃 들판을 감상해 보기 좋다. 알멘드후벨에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서 꽃길이 시작된다. 걸어서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로,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6 월부터 9 월까지 150 종류가 넘는 알프스 야생화가 피어나 그 절정에 달한다. 알펜로즈(Alpine Roses)와 에델바이스(Edelweiss)를 볼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 때다.

2.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
봄 크로커스는 4 월에서 6 월까지 해발고도 1000m 부터 2500m 까지의 산 경사면에 피어나는 고산식물의 일종으로, 산의 눈이 녹으면 일제히 얼굴을 내민다. 산의 눈이 녹는 순간 개화해 알프스에 봄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흰색과 보라색의 크로커스의 샛노란 암술은 향신료인 샤프란이 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융프라우 지역은 알프스를 대표하는 꽃과 희소성이 있는 꽃들이 동시에 피어나 옛부터 많은 식물학자들이 주목해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 중 클라이네 샤이덱에서는 스위스에서도 절경으로 꼽히는 봄 크로커스 들판을 만나볼 수 있다.

3.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에는 블루멘베그(Blumenweg)라는 이름의 꽃길이 있다. 제주올레 6 코스와 '우정의 길'로 맺어진 '체르마트 5 개 호수길' 시작되는 블라우헤르드(Blauherd)에서 시작하여 투프테른(Tuftern)을 거쳐 수넥가(Sunnega)로 돌아오는 길로, 다채로운 꽃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알프스 들꽃과 그들의 특징을 보다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 더욱 알차다. 총 길이가 약 4.3km 에 달하며 난이도도 중간 정도로 적당하다.

4. 루체른(Luzern)
루체른 근교의 리기(Rigi) 산은 무엇보다도 야생화로 유명하다. 리기 정상에서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나, 리기 칼트바드에서 벡기스(Weggis)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과남풀을 비롯하여 금매화 등 다양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산 정상을 따라 하이킹 및 자전거 도로가 놓여 있어 로드 바이킹에 더 가깝다. 자전거를 타다가 소떼를 만나기도 한다.

5. 취리히(Zurich)
바쁜 여행자라면 취리히 호숫가를 찾아보자. 취리히의 호숫가 산책로에 있는 정원은 다채로운 꽃밭으로 가꾸어져 있다. 느리게 걷기가 취리히의 새로운 패션으로 자리잡은 1800 년대에 만들어진 호반 산책로로, 오랜 시간 동안 취리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원이다. 특히 호반 산책로 중앙에 위치한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의 전망 테라스에서 화려한 빛깔의 꽃길 라이딩을 시작해 엥에(Enge)까지 호반을 따라 달려 보아도 좋다.

6. 베른(Bern)
베른의 로젠가르텐(Rosengarten) 공원은 빼놓아서는 안될 명소다. 언덕 위에 자리해 있어 베른과 아레(Aare) 강의 파노라마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데다, 장미로 조성된 공원에는 220 종의 장미와 200 종의 아이리스, 28 종의 철쭉이 피어난다. 1765 년부터 1877 년까지 마을 묘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으며, 1913 년 아름다운 꽃과 연못이 있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로젠가르텐을 오르는 길에는 일본에서 선물받은 벚꽃나무길이 있어 아름다운 봄풍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7. 생갈렌(St. Gallen) / 보덴제(Bodensee) 지역
스위스 동부에 자리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도원과 부속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 생갈렌에서 자전거를 타고 옛 라인강을 따라 라이넥(Rheineck)까지 이어지는 루트다. 생갈렌의 식물원에서 시작하는 이 루트는 호숫가를 따라 로르샤흐(Rorschach)를 지나 알텐라인(Altenrhein)까지 라이딩을 즐기며 옛 라인 강을 따라가는 피어난 들꽃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아름답다.

8. 티치노(Ticino) 주
티치노를 대표하는 동백꽃은 19 세기에 일본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어져 개량되고 색도 형태도 화려해지면서 더욱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다. 스위스에서는 겨울이어도 온난한 이탈리아어권, 티치노(Ticino) 지방에서 잘 재배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로까르노(Locarno) 주변은 동백꽃으로 유명하다. 2005 년에는 로까르노의 호반에 동백꽃 공원이 오픈되기도 했으며, 매년 3 월말에는 동백꽃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로까르노 근교에 있는 감바로뇨 식물원(Parco Botanico del Gabarogno)에서는 약 950 종의 동백꽃을 구경할 수 있다. 티치노를 대표하는 동백꽃은 티치노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사랑을 받고 있어, 매년 3 월말에는 동백꽃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감바로뇨 식물원의 포장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동백과 목련, 철쭉, 피오니 등 화려한 꽃 잔치를 감상할 수 있다.

9. 레만(Léman)호 지역

청초한 백색의 수산화가 알프스 봉우리 아래 초록 들판을 새하얗게 뒤덮는 풍경을 목격하고 싶다면 '시인의 수선화'라고도 불리우는 나르시스(Narcissus) 꽃밭을 찾아보자. 기자 자격으로 몽트뢰 근교의 샹비(Chamby)에 있는 산장에 머물고 있던 헤밍웨이도 나르시스 꽃밭의 화려한 풍경을 1922 년 5 월에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 레만호의 몽트뢰(Montreux) 언덕 위 일대는 수선화의 한 종류인 나르시스 들판이 펼쳐진다. 4 월 말에서 5 월이면 새하얀 꽃이 한창 피어나, 마치 설원과 같아 보여 '5 월의 눈'이라고도 불린다. 몽트뢰에서 골든패스 기차로 약 30 분 소요되는 레 자방 (Les Avants)을 비롯해, 샤또데(Château-d'Oex), 오-앵띠아몽(Haut-Intyamon), 레 쁠레야드(Les Pleiades)에서도 아름다운 나르시스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10. 알레치(Aletsch) 지역

어린 시절, 요들송을 따라부르며 노래 속에 등장하는 알펜로즈(Alpenrose)에 호기심을 품은 이가 있다면 베트머알프(Bettmeralp)에서 시작해 리더알프(Riederalp)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루트를 주목하자. '알프스 장미'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우리가 봄이면 흔히 접하는 철쭉이다. 혹 실망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철쭉은 원예종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스위스 남북에 걸쳐 각지의 공원이나 정원에 심어져 있으므로, 분홍, 흰색, 빨강 등 다채로운 철쭉을 볼 수 있다. 요들송에 등장하는 알펜로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치(Aletsch) 빙하 주변에서 피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4 월 하순부터 6 월 초순 사이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 지대에 붉디붉게 피어난 알펜로즈는 빙하의 신비스런 빛깔과 대조를 이루며 그 어떤 철쭉보다 강렬하게 인상에 남을 것이다.

11. 스위스 북부 지역

스위스인들은 국민 한 명당 약 2kg 을 소비하는 만큼 체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상용으로 발전한 벚꽃나무가 주류인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체리 재배용의 나무가 대부분으로, 체리나무의 수를 국민 한 명당으로 환산하면 세계에서 최고를 차지할 만큼 약 500 품종의 체리나무가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체리 열매 그대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를 대표하는 술, '키르쉬(Kirsch)'의 원료이기도 하다. 스위스 북부 지역은 스위스 체리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수원을 따라 수많은 체리나무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투르가우(Thurgau) 주의 보덴제 호숫가, 유라파크 아르가우(Jurapark Aargau) 자연 공원, 멘칭엔(Menzingen), 티터텐(Titterten) 등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동화같은 풍경 사이를 달릴 수 있다.

12. 페달 말고 기차에서

산 속에서 페달을 밟아 나갈 시간이나 체력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체질 자체가 노닥노닥 여행에 더 적합하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널찍한 파노라마 형 창문 너머로 끊임없이 변하는 꽃 풍경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기차에 올라타면 된다. 파노라마 기차를 타고 꽃이 한창이 들판과 골짜기를 둘러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빙하특급(Glacier Express)와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을 타고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그라우뷘덴(Graubuenden) 주의 꽃 풍경과 알프스 가장 깊숙한 곳의 수줍은 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
골든패스(GoldenPass)는 몽트뢰(Montreux) 주변의 나르시스 들판과 야생화 들판의 풍경을 선사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